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1월 09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서울 브랜드 I.SEOUL.U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박문수 의원 발의, 상표 선정에 관여한 관계공무원 징계 촉구도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 브랜드 I.SEOUL.U 철회 촉구 결의안이 11월4일에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채택되었다.

박문수 의원은 제안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금년 10월28일 그 동안 사용하고 있던 서울 상표인 '하이 서울'(Hi Seoul)을 대체할 새로운 서울 브랜드로 I.SEOUL.U를 선정, 발표했던 점을 밝히고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가 발표되자마자 '영문법에 어긋난다'거나 '브



박문수 의원

랜드에 대한 인식이 없다', '예산만 낭비했다'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는 서울

특별시 국어사용 조례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저해하고 모호한 의미와 어법에도 맞지 않는 영문표기의 서울 브랜드 I.SEOUL.U의 선정을 철회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으로 새로운 상표를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영문표기의 서울 새 브랜드 I.SEOUL.U의 선정을 철회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으로 다시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를 위반하고 서울특별시장을 잘못된 정책으로 이끈 서울의 새로운 상표 선정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69조에 따라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포스트 3면

서울 브랜드 I.SEOUL.U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 브랜드 I.SEOUL.U 철회 촉구 결의안이 11월4일에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

택되었다.

박문수 의원은 제안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금년 10월28일 그 동안 사용하고 있던 서울 상표인 하이 서울 (Hi Seoul)을 대체할 새로운 서울 브랜드로 I.SEOUL.U를 선정, 발표하였다.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가 발표되자마자 '영문법에 어긋난다'거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없다', '예산만 낭비했다'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

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였다"며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저해하고 모호한 의미와 어법에도 맞지 않는 영문표기의 서울 브랜드 I.SEOUL.U의 선정을 철회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으로 새로운 상표를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영문표기의 서울 새 브랜드 I.SEOUL.U의 선정을 철회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으로 다시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를 위반하고 서울특별시장을 잘못된 정책으로 이끈 서울의 새로운 상표 선정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69조에 따라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영준 의원, 강선경 의원, 이백균 의원이 찬성했다.

서울 브랜드 I·SEOUL·U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으로 다시 선정할 것 강력히 주장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 브랜드 I·SEOUL·U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나섰다. 박문수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 28일 그 동안 사용하고 있던 서울 상표인 “하이 서울”(Hi Seoul)을 대체할 새로운 서울 브랜드로 I·SEOUL·U를 선정, 발표하였는데, “나와 너의 서울, 너와 내가 서울로 이어짐”이라는 설명과 함께 명사인 “서울”을 동사형으로 사용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서울시의 새 브랜드가 발표되자마자 “영문법에 어긋난다”거나 “상표에 대한 인식이 없다”, “예산만 낭비했다”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따르면 “문구, 명칭”도 “공문서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의 책무로서 “서울특별시장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고 되어 있어, 금번 서울시의 새 브랜드 선정은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도 반하는 내용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 박문수 의원.

서울시는 세계 10대 도시에 포함되는 세계 굴지의 대도시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류가 점차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왕 서울의 상표를 바꾸려면 의미도 모호하고 어법에도 맞지 않는 외국어 상표 보다는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한글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특색 있는 상표로서 외국인에게도 더욱 잘 기억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특별시

장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저해하고 모호한 의미와 어법에도 맞지 않는 영문표기의 서울 새 브랜드 I·SEOUL·U의 선정을 철회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으로 다시 선정할 것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위반하고 서울특별시를 잘못 된 정책으로 이끈 서울의 새로운 상표 선정에 관련한 관계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69조에 따라 징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